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상세 운용전략을 활용하여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며 주식시장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6억 원

펀드유형 증권(혼합주식형), 중류형, 개방형, 추가형
-주식 편입비 : 9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A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A-E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 : 2018년 03월 29일
- 클래스 C-E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F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8년 05월 23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05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8년 05월 28일
- 클래스 S-P2(연금저축) : 2018년 08월 31일

벤치마크 없음

참조지수 KOSPI 80%+Call 20%(참조지수)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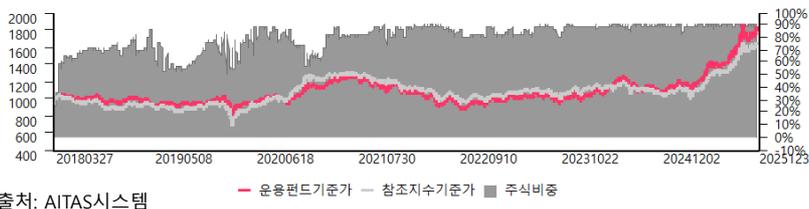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8.81%	19.91%	30.24%	69.31%	74.75%	99.50%	70.50%	83.14%
클래스 A	8.70%	19.49%	29.32%	66.99%	69.86%	91.07%	58.44%	63.29%
클래스 A-E	8.72%	19.59%	29.53%	67.53%	71.00%	93.03%	61.21%	67.78%
클래스 C	8.67%	19.41%	29.15%	66.57%	68.98%	89.58%	56.35%	59.93%
클래스 C-E	8.71%	19.55%	29.45%	67.32%	70.56%	92.27%	60.14%	66.03%
클래스 C-F	8.75%	19.68%	29.73%	68.03%	72.05%	94.83%	63.79%	72.01%
클래스 C-P(퇴직연금)	8.69%	19.46%	29.26%	66.83%	69.54%	90.52%	57.67%	58.20%
클래스 C-P(퇴직연금)E	8.72%	19.58%	29.50%	67.45%	70.84%	92.74%	60.81%	63.10%
클래스 C-P2(연금저축)	8.68%	19.45%	29.24%	66.78%	69.42%	90.32%	57.38%	60.33%
클래스 S-P2(연금저축)	8.81%	19.95%	30.48%	67.50%	71.67%	-	-	82.82%
참조지수	5.89%	18.37%	29.37%	58.33%	47.47%	70.69%	41.10%	6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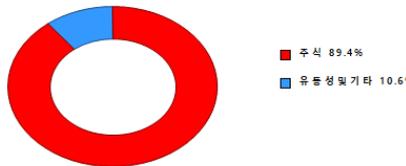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현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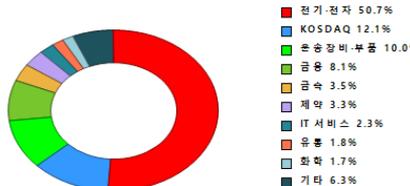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12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12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3.5	현대차	운송장비-부품	1.7
SK하이닉스	전기-전자	16.1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1.7
SK스퀘어	금융	3.2	하이브	오락-문화	1.5
삼성전기	전기-전자	2.9	두산에너빌리티	기계-장비	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운송장비-부품	2.0	HD현대중공업	운송장비-부품	1.5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4825% (판매 0.7%)
- 클래스 A-E : 총 연 1.1325% (판매 0.35%)
- 클래스 C : 총 연 1.7525% (판매 0.97%)
- 클래스 C-E : 총 연 1.2675% (판매 0.485%)
- 클래스 C-F : 총 연 0.8125%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5825%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1825%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325% (판매 0.85%)
- 클래스 S-P2(연금저축) : 총 연 0.9925% (판매 0.21%)

(공통사항)

운용 0.75%,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클래스 C, C-E, C-F, C-P(퇴직연금), C-P(퇴직연금)E, C-P2(연금저축), S-P2(연금저축) :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KOSPI는 전월 대비 7.32% 상승한 4,214.17pt, KOSDAQ은 1.40% 상승한 925.47pt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1월부터 있었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일본 BOJ의 금리인상 우려 등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12월 자체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으나, 큰 틀에서는 11월부터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라클 실적 전망치 하회 및 데이터센터 투자 철회, 브로드컴의 마진 둔화 불안감 등으로 KOSPI 지수는 4,000pt를 하회하기도 하였으나,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 외국인 순매수 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AI 버블 우려가 희석된 반도체, 로봇과 자율주행 비즈니스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틸리티, 화학, 화장품 등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환율 방어 움직임으로 1,433.9원으로 하락 마감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 대비 하락한 57.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인 각각 5.2조원, 3.5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약 7.7조원의 순매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월 국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과 12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긴축 우려가 완화되었고, 마이크론 실적을 시작으로 다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지수는 바닥을 다져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나, 에너지, 식품 CPI를 감안 시 단기적으로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매크로 지표는 현재의 유동성 확대와 경기 호조세를 강하게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부 정책,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 흐름의 환경에서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주식시장 지원책이 글로벌로도 차별화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테마의 확대, 수주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기존 주도주의 재상승 가능성과 CES 효과 등에 따른 새로운 테마의 출현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가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의 섀도우 장기화와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불확실성,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도 우려 등에 따른 시장의 기간 조정은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익 전망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우려와 달리 AI 투자는 지속되고 있어 시장은 우상향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5년까지는 KOSPI 중심의 일방적인 상승을 보였으나 26년부터는 정부의 코스닥 부양 기조가 확인됨에 따라 KOSPI 지수 대비 KOSDAQ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KOSPI 지수와 KOSDAQ 지수간의 가격 괴리가 축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 해당 이슈에 유의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축소하되, 반도체 업종의 수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지분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을 시장 대비 높게 유지할 계획이며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6년에는 스페이스 X IPO에 따른 관련 업종 및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거나 납품을 계획하고 있는 종목,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업체, 위성 기술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등에 대한 관심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 조정시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봇의 경우 26년 양산화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이에 실적 상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고 해당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의약 업종의 경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였고 향후 생물보안법 이슈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26년에도 라이선스 아웃이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나,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기업 및 보안솔루션, AI 관련 IP 기술 보유 기업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업종 및 종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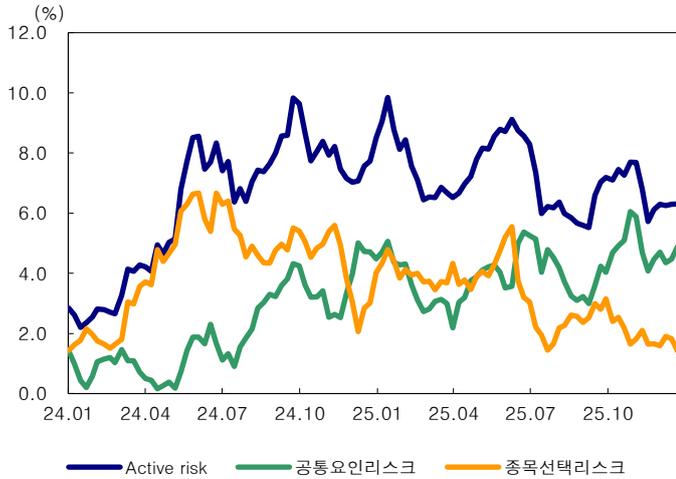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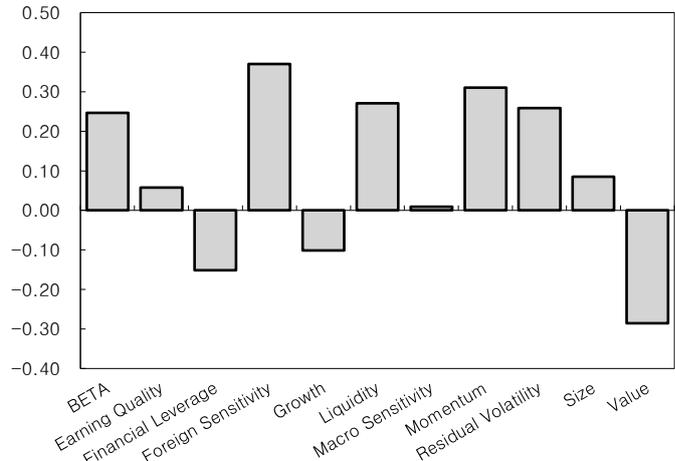
	2025-12-31	2025-11-28
Active Risk ¹	6.47%	6.11%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4.97%	4.46%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4.15%	3.59%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82%	0.87%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1.49%	1.66%
베타	1.06	1.01

1. Active Risk는 참조지수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참조지수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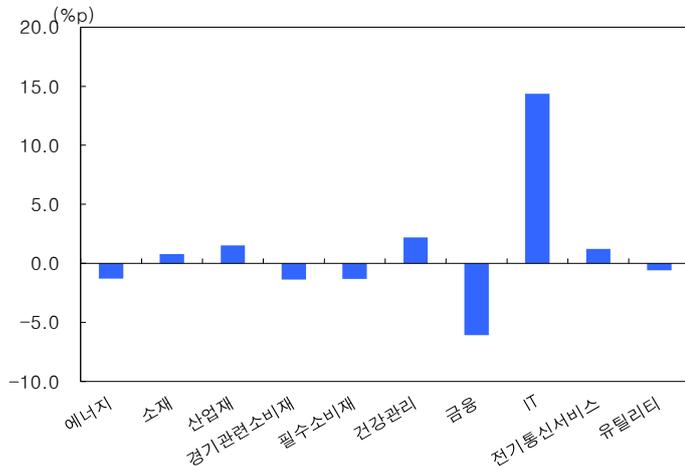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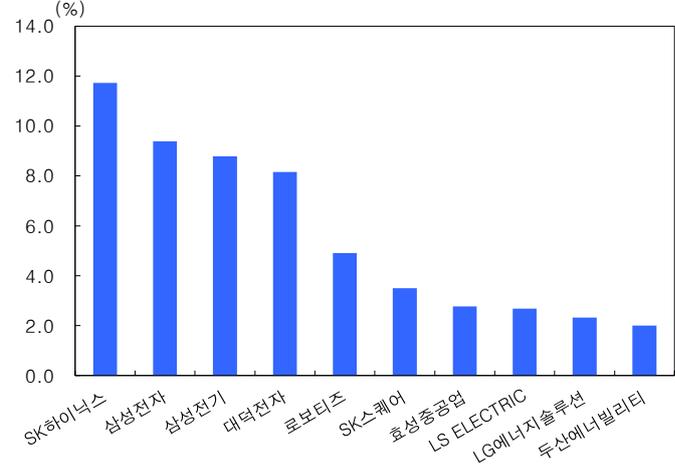
<참조지수 대비 스타일 비중차>



<참조지수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11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12월말 현재, 코리아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의 Active Risk는 6.47%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26개 종목 증가하여, 87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참조지수 대비 'IT', '산업재'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경기관련소비재', '건강관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11월말 기준으로는 '삼성전기'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로보티즈'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Foreign Sensitiv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 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